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한 항공기 촬영법 (9)



‘시리즈 사진 촬영법’

이번호에서는 항공기를 한 장의 사진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이륙부터 착륙까지 스토리를 엮어가는 사진을 촬영해 보기로 합니다.

글 · 사진 | 예민수(para@paraview.co.kr)

항공기는 3차원을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피사체로 3차원의 카메라 앵글에 따라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물론 최고의 한 장면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실제로 항공기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너무나 다양한 모습입니다. 여러 관점에서 관심부분을 다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촬영된 사진이 필요합니다.

이 분야에 최고의 교재는 <내셔널지오그래픽>입니다. 하나의 테마로 다양한 사진이 실리게 됩니다. 한 주제로 수 십장의 엄선된 사진이 마치 영화나 만화를 보듯이 전체적인 흐름을 설명해 주는

것으로 어떤 언어보다도 더 간략하고 설득력을 가지게 됩니다.

스토리 사진은 동영상을 보는듯한 자연스러운 흐름이 필요합니다. 주어진 피사체(항공기)의 어떤 모습을 표현할지 부터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다양한 항공기의 연출이 필요하고요. 이 경우 미리 조종사와의 사진가와의 약속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촬영자가 피사체를 따라가기는 장비와 렌즈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촬영자의 위치를 정하고 조종사와 미리 충분히 의사소통을 해야 합니다. 원하는 방향과 고도, 거리를 미리 계산해서 최대한 촬영자

가까운 곳에서 비행을 해야 가능한 촬영입니다. 길이나 폭이 7미터 정도인 이 소형비행기를 넓은 하늘에 풀어놓고 그냥 촬영하려면 웬만한 망원렌즈로도 어렵습니다.

촬영된 프레임은 최대한 후작업을 하지 않고도 안정된 프레임에 짜임새가 있어야 합니다. 촬영해서 나중에 트리밍을 거치면 보완이 되지만, 이 경우 그만큼의 화질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촬영할 때 최대한 후작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벽한 프레임을 잡아야 좋은 화질의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촬영으로 들어가면, 우선 하늘이 배경인 사진인 경우, 일단 기본적인 카메라가 지시하는 노출대로 촬영하면 피사체인 항공기가 어둡게 나올 수 있습니다. 사진 4번과 5번을 비교하면 쉽게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대에 촬영한 북쪽하늘의 4번 사진은 1/500, f:8, +1/2 로 촬영했습니다. 파란 하늘이 적당히 항공기와의 노출을 맞추어 하늘의 색상(농도)이 묘사되지만, 5번 사진은 남쪽하늘로 1/750 f:9.5 +1 로 북쪽하늘보다 한 스톱 반이나 노출을 더 주었습니다. 항공기의 색상도 제대로 묘사되지 않고 하늘의 톤도 재현되지 못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비행중인 항공기의 노출은 조금(1/2~1stop)오버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촬영 전에 조종사와 미리 협의해서 항공기가 가장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태양이 없는 북쪽하늘 방향으로 항공기를 비행을 유도해서 촬영했습니다. 참고로 북쪽하늘이 남쪽하늘보다 1stop이상 어두운데 태양을 등지고 있는 북쪽 하늘을 배경으로 항공기를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사진의 노출은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습니다. 제대로 표현하려면 제대로 된 노출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필요합니다(북쪽하늘 추천).

항공기의 출발부터 도착까지 하나의 자연스러운 스토리를 구성할 때는 전체적인 촬영을 비디오 찍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름대로 구성한 시리즈 사진을 다보고 나면 마치 옆에서 항공기를 지켜본 것처럼 기억할 수 있게 결과물을 만들어 내시면 됩니다. 흔히 보는 잡지의 기획기사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리즈 사진촬영에서 가장 좋은 사진을 얻는 방법은 영화 찍듯이 다양하게 많이 촬영해서 스토리를 재구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실린 사진은 일주일 간격으로 시간을 달리해서 두 번의 촬영을 하나의 스토리로 재구성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항공기 촬영에서는 충분한 메모리와 적절한 망원렌즈를 준비해서 다양하게 많이 촬영해야 합니다. 어떻게 구성할지 머릿속에서 먼저 편집을 하시면 더 다양한 사진을 촬영하게 됩니다.



① 1/500 f:6.7 +1/2

출발선에 대기 중인 항공기입니다. 프로펠러의 위치는 운에 맡겨야 합니다. 여러 장 촬영해서 가장 적절한 위치에 자리 잡은 사진을 골라내시면 됩니다.



② 1/125 f:5.6 +1/2

이륙을 위해서 속도를 붙이고 있는 항공기의 뒷바퀴가 들려 있습니다. 항공기의 속도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펜닝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항공기는 정지모션이지만 배경은 약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③ 1/250 f:5.6 +1/2

석양을 배경으로 힘찬 이륙중인 항공기

④ 1/500 f:8 +1/2



이륙해서 고도상승중인 항공기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북쪽하늘 배경으로 항공기의 색상과 하늘의 배경을 잘 조화시킬 수 있습니다(흑백에서는 농도차이로만 묘사됩니다).

⑤ 1/750 f:9.5 +1



남쪽하늘의 경우 노출을 더 많이 주었지만 하늘의 농도는 날라버리고 항공기의 색상은 제대로 표현되지 못했습니다(사진의 한계임).

⑪ 1/500 f:8 +1/2



착륙을 위해 어프로치중인 항공기. 낮은 고도라 지상의 배경이 같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망원렌즈의 특성인 자연스러운 배경 흐림과 역시 빠른 셔터스피드 이지만 약한 펜닝효과가 생겼습니다. 카메라가 항상 항공기의 이동을 추적하면서 동영상 촬영하듯이 촬영하면 지상의 배경은 자연스럽게 흐려지고 속도감을 표현하게 됩니다. 프레임 속에 꼭 찬 항공기의 힘찬 모습입니다. 모든 사진이 트리밍을 거치지 않은 원본사진입니다. 순간적인 공간배치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카메라의 가장 큰 장점이 속사로 많이 촬영해서 가장 좋은 장면을 고르는 것이라 가능했습니다.

⑩ 1/750 f:8 +1/2



지상에 있는 촬영자를 향해서 정면으로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이 경우도 촬영 전 미리 이야기 하지 않고는 촬영이 어려운 장면입니다. 역시 북쪽하늘입니다.

⑫ 1/90 f:4.5 0



착륙 후 S9 조종사 기념촬영, 노출 보정해준 것을 원상태로 돌렸습니다. 항공기를 다 보여주면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게 됩니다. 어디서 자를 것인가? 사진가의 몫입니다.



⑥ 1/500 f:8 +1/2



낮은 고도로 유도해서 지상의 배경을 같이 잡았습니다. 고속의 비행이라 1/500초의 스피드에도 펜닝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배경이 항공기의 스피드를 표현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저고도로 비행하지는 않습니다.

⑦ 1/750 f:11 0



마치 하늘에서 항공기 위에서 촬영한 것 같지만 이 경우에는 조종사가 촬영자 쪽으로 항공기의 윗면이 보이도록 조종을 한 것입니다. 배경은 북쪽 하늘을 향해서 연출을 부탁한 것입니다. 북쪽하늘이라 노출보정 없이 하늘배경과 항공기의 색상이 제대로 표현되었습니다.

⑧ 1/350 f:6.7 +1/2



북쪽하늘 배경으로 항공기의 배면을 찍어 보았습니다. 하늘의 밝기가 적당하기에 배면의 색상이 제대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빠른 항공기를 촬영하려면 렌즈를 통해서 계속 항공기를 추적하면서 촬영해야 합니다. 셔터의 인터벌이 심한 소형 디지털 카메라로는 촬영이 어려운 장면입니다.

⑨ 1/500 f:8.0 +1/2



지상에 주기한 상태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항공기의 아랫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위의 사진을 단기간에 촬영할 수 있게 적절한 위치에서 저고도 비행과 뱅크를 감당해 주신 S9 김광만님께 감사드립니다. 📷



모델 항공기
 제조사: 미국 RANS S9(견역기: 곡예비행이 가능한 기종)
 탑승인원: 1인승
 엔진: 로텍스 582
 중량: 168 kg
 구조: 프레임구조에 우퍼 (동체, 날개)
 최고속도 208 km/h / 크루저스피드 160km/h / 스톱스피드 64km/h
 조종사: 김광만 민주한의원 원장